

기본소득과 나

이지상

가수

‘어디 남의 돈 먹기가 쉬운 일이나?’ 도깨비불 반짝이는 여름밤, 장에 내다 팔 열무나 쪽파 단을 묶으시면 어머니는 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일을 마치면 잠깐의 쪽 잠도 못 주무시고 시오리가 넘는 장터에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경우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내 돈 귀한 줄 알면 남의 돈도 귀한 줄 알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참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당신 명의의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면서도 동네에 노는 땅을 얻어 경작하셨습니다. 다행히 토지세는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늘 가난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세상을 제로섬(zero-sum)게임의 사회로 봅니다. 누군가의 호주머니가 두둑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누군가의 호주머니는 빈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이 정직한 댓가를 받는 세상이었다면 어머니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빼앗긴 게 맞다면 빼앗은 것도 맞습니다. 왜 나의 노동을 빼앗는가를 말하면 불온한 자가 되지만 숫자로 된 공간에 차곡차곡 부를 쌓아온 사람들은 능력자가 됩니다. 평생의 노동을 누군가에 의해 빼앗긴 어머니의 아들인 나는 무상급식의 수혜자였습니다. 점심때 학교에서 주는 빵 한덩이를 시혜받기 위해서 나의 가난을 증명하기 위한 몇 개의 서류를 준비했고 동네 반장님과 이장님의 도장을 받으러 돌아다녔었습니다. ‘나눔과 베품’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만 애초 차별이 없었다면 굳이 나누고 베풀 일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차별의 역사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노예에게는 신발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에 족쇄를 채웠었습니다. 예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험한 말을 들었던 바리사이인(영어:Pharisees)의 뜻은 ‘구별된 자’ 또는 ‘분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로부터 구별 당했던 예수의 신분은 암하레츠(Am-ha'aretz:땅의 사람들)였습니다. 프랑스의 농노들은 흰 빵을 먹지 못했습니다. 대신

거친 흑빵을 주었습니다. 자존과 품위를 거세당한 노예들에게 신발과 흰 빵은 자유의 상징이 되었고 지배자들은 그것을 경계했었습니다. 1443년 음력 12월 훈민정음을 창제 했을 때에도 당시 차별하는 자, 구별 하는 자들은 언문(諺文)이나 반절(反切), 암글, 아햇글 등으로 명칭하며 한글을 비하했었습니다. 그들에게 백성들의 문자를 통한 각성은 차별할 수 있는 권력을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홍길동전'의 창작년대가 대략 1612년 정도이니 한글을 통한 백성들의 수난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차별하는 자'들은 대개 부르조와 계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미개하니 이끌어 주어야 하고 훈육받아 마땅한 존재들로 여겼습니다. 구한말 개화파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그랬고 이들의 대부분은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민중을 위해, 민중과 함께'라는 구호를 입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스스로 민중이 되어 사는 삶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차별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할 수 없는 계급적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명분은 소위 '법과 원칙'입니다. 그 명분이 모든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중국 통일왕조는 진(秦)나라입니다. '형벌은 무겁게 상은 가볍게'라는 법가(法家)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실행자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가의 대표적 사상가 상앙(商鞅 기원전 390년 ~ 기원전 338년)는 거열형에 처해졌고 이사(李斯, 기원전 284년 ~ 기원전 208년)는 요참형과 동시에 삼족을 멸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서인 로마서4:13절은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는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록 합니다. 논어의 안연(顔淵)편 에는 국가의 통치 방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백성들의 군주에 대한 신뢰를 꼽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입니다. 2011년 당시 서울 시장 오세훈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반대 투표를 강행했었습니다. 준엄한 법과 원칙을 통한 차별할 수 있는 권력을 시민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코로나 19가 가장 기승을 부리던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홍남기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의 지도하에 있는 백성들은 절대 동등 해서는 안된다는 차별의식의 발로입니다.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시혜' 또는 '혜택'을 받지만 왜 국가가 국민을 시혜의 대상으로 삼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존재가 되는 사회에서 서로간의 신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의 모든 재정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그 돈은 애초에 국민들의 것이

었으니 모든 국민들이 받아야 함은 혜택과 시혜가 아닌 당연한 일입니다. 하여 우리는 늘 내가 낸 돈으로 국가가 왜 생색을 내는가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1945년 가까스로 식민의 섬을 벗어나 공화(共和)로 가는 항해의 유일한 도구는 난파에 가까운 배 한 척이었습니다. 격랑의 시간이었습니다. 배는 멈출 수 없었고 선원들은 가용한 모든 재료 들을 모아 배를 고쳐갔습니다. 조타실의 사람들은 선원들이 잡아올린 고기를 쟁여놓는가 하면 심지어 모자란 배의 부속품까지 빼내어 잇속을 차렸습니다. 그러고도 조타실의 명령에 불복하는 선원들을 잡아 가두고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조타실을 장악한 사람들은 식민의 섬 시절에도 지배자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차별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장난 배의 수리가 끝날 때 즈음이면 또다시 고장났고 대부분의 이유는 선장의 그릇된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한 때 달빛 고요한 밤바다를 평화롭게 유명한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거친 파도와 세찬 바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리는 공구를 들고 어디서 들이칠지 모르는 바닷물과 싸울 준비를 늦추지 않고 항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화(共和)로 가는 항해에 정박할 항구는 없었습니다. 배를 수리할 마땅한 공간도 없이 긴 항해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예가 신발을 농노들이 흰빵을 쟁취했던 것과 같은 의미로 여깁니다.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차별당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자각하는 신호입니다. 등급 나눔에 차별이 일상화된 우리의 자존 의식을 깨워 함께 민주(民主)와 신뢰의 장을 만들어 가는 연대의 선언입니다. 또한 마땅한 대책 하나 없이 가난한 집 한 채로 노후를 기억해야 하는 나 같은 이들의 거의 유일한 노후 대책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은 기약 없는 공화의 항해에 가장 성능 좋은 엔진을 장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하여

부자들에게 돈을 쓰면 왜 투자라고 말을 하고/가난한 자에게 돈을 쓰면 왜

비용이라 말하는가

정치는 자원의 재분배/세금을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

넘치게 받아도 부족한 사람 있고/못 받고도 말 못하는 사람 있네

당신은 여자 남자 당신은 청년 혹은 노인/당신은 소득분위 몇 구간 장
애 몇등급
빈부를 나누고 등급을 매기고/차별하고 또 그게 당연하고
꽃없는 열매가 어디 있던가/열매가 꽃을 차별하던가
시민 없는 국가가 어디있던가/국가가 시민을 차별하는게 온당한가

나에게 투자도 하지 마라/나에게 비용도 지불 하지 마라
국가가 나에게 등급을 매기면/나도 국가의 등급을 매기겠다
모두에게 자존이 있음을/모두에게 품위가 있음을
모두가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국가가 증명하는 것 기본소득
모두가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국가가 확인하는 것 기본소득